



**03**  
INTERVIEW

넥타이 브랜드 '스테파노 비지'의 수장,  
스테파노 비지를 만나다  
개성과 역사를 담은 넥타이를 만듭니다

다양한 소재와 패턴으로 이탈리아 신사들의 마음을 훔친 스테파노 비지가 지난 7월 4일, 갤러리아백화점 웨스트의 랜스미어 매장에서 트렁크 쇼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신사를 위한 특별한 자리에서 브랜드를 이끄는 스테파노 비지를 만났습니다.

**LEON(이하 L)** <레옹> 독자들에게 자신과 브랜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BIGI(이하 B)**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파노 비지입니다. 누나와 함께 3대째 기업을 이어 스테파노 비지를 이끌고 있죠. 스테파노 비지는 과거엔 여러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지만, 1990년부터 저희 이름을 단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 스테파노 비지는 여러 소재와 패턴을 아우르는 타이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타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B**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넥타이의 퀄리티입니다. 물론 넥타이의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브랜드가 풍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좋은 원단과 독자적인 핸드프린팅 기법은 좋은 퀄리티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L** 남자의 스타일에서 넥타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B** 넥타이는 사람의 성격과 기분을 고스란히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그날의 날씨나 기분에 맞는 넥타이를 고를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넥타이로 사람의 기분을 판단하곤 하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웃음)

**L** 올가을엔 어떤 소재와 컬러의 타이가 사랑받을까요?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나요?

**B** 올가을을 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버건디나 브라운 계열의 타이를 골라보세요. 네이비나 그레이인큼 균형하고 진중한 느낌을 풍기면서도 신선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경계를 더하고 싶다면 다양한 패턴이 살아 숨 쉬는 타이를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선보이는 타이처럼 말이죠.

**Column**

**피티 우오모에서 타이의 달인을 만나다**

스테파노 비지의 트렁크 쇼는 이번 피티 우오모에서 주목받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04**  
HOTEL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2+1 주말 브런치 프로모션'  
고급스러운 브런치를  
합리적으로 즐기는 방법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8월을 맞아 호텔 내 전통 있는 일식당 '아카사카'와 양식당 '파리스 그릴'의 주말 브런치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하얏트 서울이 자랑하는 아카사카와 파리스 그릴에서 선보이는 주말 브런치는 고객에게 가장 있기 있는 메뉴를 각각 일식과 양식 부페 스타일로 제공합니다. 아카사카 브런치에서는 와타나베 케이이치 세프가 준비한 60여 가지 브런치 메뉴 외에 각종 야채와 과일로 만든 건강 음료를 디저트 스테이션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파리스 그릴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스 등 다양한 유럽언 스타일 음식을 경험할 수 있죠. 8월 한 달간 진행하는 '2+1 주말 브런치 프로모션'은 아카사카 또는 파리스 그릴의 주말 브런치를 2인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게 다음 방문 시 이용 가능한 1인 브런치 쿠폰을 증정해 브런치를 실속 있게 즐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랜드 하얏트에서 준비한 동서양 브런치로 활기찬 주말을 시작해보세요.

**2+1 주말 브런치 프로모션**  
기간 8월 한 달간 주말(토·일요일) 가격 아카사카 9만9000원  
파리스 그릴 8만9000원(세금 포함) 영업시간 11:30~15:00  
문의 및 예약 아카사카(02-799-8164),  
파리스 그릴(02-799-8161)